

#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첫 발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기재... 2026년 최종 선정

무안군이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발을 뒀다.

무안군은 무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기재, 등재를 위한 중요 관문의 하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의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해 무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추진되고 있다.

무안갯벌(해저면·현경면 일원)은 2001년 해양보호구역 1호로 지정돼 있으며 250종 저서생물과 칠면초, 갯잔디 등 56종의 염생식물, 흑부리오리, 마도요 등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곳으로 자연 그대로 보전된 갯벌 생태관광지다.

2024년 국내 철차 이행 후 신성서 제출하게 되면 자연기구(세계자연보전연맹)의 현지 실사와 평가 후에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26년 심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군은 무안갯벌을 세계인이 찾는 해양문화 공간으

로 만들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무안갯벌”을 목표로 자연유산 관광상품 개발, 미래형 청정 갯벌 생태체험 고도화 등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인간과 지구를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무안, 고흥, 여수 갯벌로 구성됐다.

앞서 2021년에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4곳의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제6호 무안갯벌까지 맨손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과 함께 생태문화자원인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무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기재, 등재를 위한 중요 관문의 하나를 통과했다.

〈무안군 제공〉

## 영암 이민자를 이해한다

### 31일 사회통합·상호이해교육

### 공무원·외국인 등 참가자 모집

영암군이 오는 31일 오후 4시 군청에서 열리는 ‘이민자 사회통합 및 상호이해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에 따라 이민자 통합사회로 가기 위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취지다.

이민 통합 전문가인 법무부 이민통합과 출입국관리 사무관,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 단원을 초빙한다.

영암에 거주하는 공무원, 이주민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영암 체류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 9월 기준 7917명으로, 지난 6개월 사이 1600여 명이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약 15%가 외국인 주민인 영암군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분류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 ‘남도의 가을 즐기는 법

# 힐링되네...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 숲속 음악회·가을밤 치유콘서트 청산도 은하수 투어 등 북적북적 29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해양치유 체험과 고산 풍류 경연, 은하수 투어 등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2023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막한 ‘2023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에 하루 최대 1000여명이 주 무대인 완도해변공원을 찾은 등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치유 체험존은 낮 시간대 대기 줄이 만들어질 정도다. 매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마술쇼와 버블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가을밤 치유 콘서트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섬 권역에서 열리는 청산도의 범바위 은하수 투어, 보길도의 고산 풍류 경연, 세연정 등불 축제 등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완도 수목원에서 진행되는 가을 숲속 음악회와 공예 체험 등도 관심이 높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에서는 보물찾기, 동백



해변공원에서 매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마술쇼와 버블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가을밤 치유 콘서트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완도군 제공〉

공예품 만들기가 마련되며 바다와 숲의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남파랑길 걷기 투어 맛보기’는 2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2023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은 오는 29일까지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섬 권역과 완도 해변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에서 열

린다. 완도군 관계자는 “푸른 바다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완도의 가을 섬에서 좋은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군침도네...해남미남축제 ‘3색 테마밥상’

### 11월 3~5일 개최...이순신 밥상 등 이달 30일까지 예약

‘2023 해남미남축제’에서 3가지 특색있는 초대밥상을 경험할 주인공을 모집한다.

해남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삼산면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해남미남축제에 ‘미남주제관’을 처음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미남주제관에서는 종가밥상, 이순신 밥상, 기후밥상을 주제로 3가지 테마 음식 100선이 전시된다.

3가지 테마음식은 ‘해(年)를 쌓아 온 해남’, ‘해(SUN)처럼 기운 솟는 해남’, ‘해(海)에게 부끄럽지 않는 해남’을 주제로 테마음식을 직접 식사할 수 있는 초대밥상의 기회도 갖는다.

축제기간 매일 점심으로 30명만을 특별 예약 받는다. 성인 1명당 2명까지 예약 가능하며 1인

체험비는 1만원이다.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年)를 쌓아 온 해남’을 주제로 종가밥상을 구현한 운영팀 연구소는 추복죽, 어만두국, 굴영양찰밥, 비자강정 등을 메뉴로 제공한다.

‘해(SUN)처럼 기운 솟는 해남’을 연구한 운문희 연구소는 난중일기 속 이순신밥상을 재해석해 코스로 선보인다. 송어탕수와 소고기 육전, 봉총찜, 무밥, 동아식혜 등을 맛볼 수 있다.

‘해(海)에게 부끄럽지 않는 해남’을 준비한 이승희 연구소는 기후밥상으로 이름 붙인 콩고기황칠탕수육, 두부장비빔밥, 굴찜전유어, 두부장어랑까나페 등이 차려진다.

초대밥상과 함께 미남주제관에서는 3가지 테

마의 음식 100선이 전시되며, 전시음식 중 한입 거리가 가능한 음식을 중심으로 총 9회 시식타임을 운영한다.

군은 미남주제관 운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밥상테마를 발굴해 해남고유의 음식을 정리했으며, 향토음식가가 참여해 3가지 밥상코스를 완성했다.

군은 미남주제관 초대밥상을 통해 해남의 맛과 멋을 선보일 계획으로, 올해 시범운영과 평가 이후 미식관광 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먹거리 축제로서의 해남 미남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차별화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초대 밥상을 운영한다”며 “해남의 건강한 먹거리로 만든 테마밥상을 통해 가을 해남의 풍요로움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영암 선박 건조장, 공연장 되다

### 현대삼호중, 유명 가수 등 초청 공연 “임직원 노고 격려”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이 감미로운 공연 무대가 됐다.

HD현대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 사장)은 최근 선박 건조 현장에서 열린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초 아이비와 지현우, 환희 등 가수들이 선박 건조 현장을 무대 삼아 공연을 펼쳤다.

공연이 열리는 2시간 동안 탁 트인 바다와 대형 선박이 불 밝히는 야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이번 공연은 선박 주주 호환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 지친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 영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개관

### 갤러리·세미나실 갖춰

영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최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복합문화센터는 대불산단 근로자와 상호읍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는 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됐으며, 상호읍 대불산단 인근에 연면적 1535㎡ 지상 2층 본동, 지상 1층 별동으로 건립됐다.

본동의 예뻐·갤러리, 세미나실, 커뮤니티홀, 작은영화관 등은 맞춤형 문화·예술·여가·취미 프로그램 장소로 쓰인다.

별동의 근로자 작업복세탁소는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시간 절약에 위해 운영된다.

센터 위탁기관인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은 상호읍민과 산단 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복합문화공간에 걸맞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체형 교정, 실용음악, 유아발레,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등 14개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에서 대상 수상자들이 김희수(가운데) 진도군수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성료

진도군이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의 보호·육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국경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제27회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47주의 우수한 진도개가 출전해 열린 경합을 펼쳤다.

대회에서는 대상부터 동상까지 모두 37마리가 우수견으로 선정돼 3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인 진도군수상에는 ▲강희원의 ‘육주강’ ▲김영환의 ‘백’ ▲이용호의 ‘금복이’ ▲심삼용의 ‘만호’가 차지해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인 진도군의회 의장상에는 ▲오순재의 ‘해리’ ▲김신덕의 ‘진돌’ ▲강석수의 ‘현광’ ▲유승현의 ‘무쇠’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는 식전공연과 함께 ‘Dog 스포츠’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행사장을 찾은 전국 진도개 반려인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도개 개 전세계 명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진도개의 복지와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27~28일 신안젓갈타운

### 농·수산물 최대 20% 할인

김장철을 앞두고 신안 지도에서 ‘젓 새우젓 축제’가 열린다.

신안군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지도 신안젓갈타운에서 ‘젓 새우젓 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신안군은 4월 간재미, 5월 흥어, 깡다리, 낙지 축제와 6월 병어, 8월 민어, 9월 왕새우, 우럭, 불불락, 10월 새우젓 등 계절 수산물 축제를 열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안에서 생산한 새우젓(사진)과 농·수산물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신안군은 방문객에게 청정 해역에서 생산한 새우젓을 소포장해 나눠줄 예정이다.

축제 개막 행사와 함께 새우젓 김치 담그기, 새우젓 깜짝 경매 등이 이어진다.

신안은 국내 최대 새우젓 생산지이다. 143척

의 어선이 연간 1만3949t의 새우를 잡아 44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안 새우젓은 젓새우와 게르마늄이 풍부한 전일염으로 담갔다. 육질이 단단하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력 강화와 뇌세포 성장, 인지능력 향상, 염증 질환 개선, 소화 기능 향상, 항암, 다이어트 등에 좋은 음식으로 전해진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 축제를 통해 신안군 새우젓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신안젓갈타운을 활성화해 지역상인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